

제37차 PASC 총회 참석 결과 보고

- '14.5.12(월) 국제표준과 임미희 연구사(7400) -

제37차 PASC(태평양지역표준회의) 말레이시아 총회 참석 결과를 보고 드림

* PASC(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) : 미국, 일본, 중국 등 아태지역 25개국으로 구성, 회원국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표준화 관련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매년 개최

- (주요활동) ① 총회 참석 및 『국제표준올림피아드』 개최(8월) 사전 홍보
② 우리나라의 ISO/IEC 정책위원직 출마(9월, 11월) 득표활동
③ 미국, 말레이시아, 일본, ISO 등 표준협력 양자회의

I. 출장 개요

- 일시 및 장소: '14.5.5(월)~9(금)(5일간),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
- 출장자: 안종일 국장, 정기원 과장, 마재용 사무관, 임미희 연구사
- 참석국: 19개국 100여명
- 주요 성과: 우리나라의 ISO/IEC 정책위원직 출마 계획 및 '14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계획에 대한 다수의 지지국 확보
- 주요회의 참석: ① 표준교육 워크숍(월) ② PASC 총회(화~수)
③ PASC 운영위원회(금) ④ 한-미, 한-말레이, 한-일 등 양자회의

II. 주요 결과

□ 표준교육 워크숍

- 표준교육 분야에서 선도국인 우리나라, 일본, 중국, 인도네시아, 중국은 자국의 표준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협력방안 모색
 - 우리나라는 국내 표준올림피아드를 소개하고 올해는 PASC 회원국을 초청하여 국제대회 개최계획 보고('14년 8월)
 - * 우리측이 사전에 고려한 3개국은 미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임
- PASC 표준교육 선도 계획을 위한 후속조치(PASC 운영위 요청시)
 - ISO 가이드북 "Teaching Standards"에 우리측 검토의견 제공
 - 표준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수립에 우리측 아이디어 제공

□ PASC 총회

- 회원국은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합의함
 - 각국의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PASC 표준교육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PASC가 직면한 표준인력 세대교체 시점에 대비하고자 함
- PASC 향후 전략 및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
 - PASC가 ISO/IEC 등 국제기구 및 유럽/아메리카 등 타지역기구의 정책에 강력한 대응이 가능토록 회원국간 우선적 합의 필요
 - * 차기 총회시까지 PASC 미래 전략 개정본을 완료키로 합의
- ISO 2016-2020 전략에 대한 PASC 회원국의 검토의견 제출에 합의
 - ISO의 지적권 등 유료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선진국 위주로 편중된 리더쉽 현황의 개선 요청
 - * PASC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정리 및 승인하여 ISO에 제출토록 함

□ 양자협력

- 미국표준협회(ANSI) 및 말레이시아표준청(DSM): 우리나라의 ISO/IEC 정책위원직 출마에 대한 지지요청 및 '14년 국제표준올림픽아드에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대표팀 참가 요청
 - * 후속조치: '14년 국제표준올림픽아드 공식초청장 및 운영요령 상대측에 송부
- 미국재료시험학회(ASTM): '14년 파견관 복무규정 논의 및 ASTM 서울 이사회 개최 관련 협조사항 검토
 - * 후속조치: 전종윤연구사의 ASTM 파견일자 회신, ASTM 이사회 환영만찬 준비
- 일본(JISC): 우리나라의 ISO/IEC 정책위원직 출마에 대한 지지요청 및 동북아표준협력포럼(6월 말, 경주) 개최 관련 논의
- 국제표준화기구(ISO): ISO 사무총장 방한 세부일정('14.5.14~16일) 논의

원 장

김